# 팔달산(八達山)·팔달동(八達洞)과 팔달로(八達路)

## - 사주팔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

같은 한자 문화권이 되다 보니중국과우리나라에는같은 지명이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은한자로적을때서로가가호자, 즉 좋은 의미로 해석되는 글자를 표기하다 보니 같은 이름이 생겨난경우도많을것이다.

우리나라와중국이같이사용하는 지명의 하나로서‘ 팔달(八達) ’이있는데그중몇개를여기에소개해본다. 경기도 수원시에는 팔달산(八達山)을 비롯하여팔달문(門)이니, 팔달구(區)니, 팔달동(洞)이니하는 등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여기서‘ 팔달 ’이라는 말은 <진서>의‘ 사통팔달 ’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팔방으로널리통한다는뜻이다.

고려말, 조선초기때의이야기로서고려공민왕때문과에급제하여한림학사를 지낸 이고(李皐)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가 공양왕때벼슬을사양하고내려와수원의 한 산자락에 자리잡고 살면서 호를 망천(忘川)이라 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 요즈음에는 무엇으로 소일하느냐? ”하고 묻자,“ 집 뒤에 있는 탑산(팔달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이곳에서는사통팔달(四通八達)하여 마음과 눈을 가리는 것이 없으니 즐겁습니다 ”하고대답하였다.

조선이 세워진 후에도 새 조정에서 벼슬을 내리면서 그에게 출사(出仕)할 것을 종용하였으나끝내나서지않았다. 그러자 임금이 화공을 시켜서 그가 살고 있는 탑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오라 하였다.

산 ‘이라 하면서 산 이름을‘ 팔달산 ’으로 부르게하였다는것이다.

대구시북구관문동에도법정동인팔달동(八達洞)이 있다. 이곳의 팔달이라는 이름도이곳이금호강을 건너는나루터이자 원(院)이 있었던 곳이므로 사통팔달의 의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도 이곳에서대구시내로통하는팔달교가놓였고, 바로옆에는중앙고속도로와경부고속도로가교차하는금호분기점이있는교통의요충지이다.

전주시의 팔달로(八達路)는 전주시 풍남문(豊南門) 동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중앙성당 - 진북광장 - 전북일보사앞을지나추천대교에이르는길이다. 이길을팔달로라고 명명한 것은 중앙동 전북도청(구) 정문북서쪽에그전에팔달루(樓)라는 누각이있었으며, 그곳에있었던종동마을을 1914년 일제 때에 팔달정(町)으로고친 적이있는데팔달로라는거리이름도그래서붙여진것이다.

중국 북경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가보는 코스 중하나가 바로 팔달령(八達嶺)

산의 능선이나 골짜기를 가리 않고끝없이뻗어나간만리장성 위용에 압도되기도 하는데, 필 는그전부터이곳의‘ 팔달령 ’이 는 이름에 눈독을 들였었다. 북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 해 놓은 곳에 사통팔달의 팔달 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기 문이다. 아마도 팔달령은 만리 성축조이전부터있었던이름이거나혹 이고개를넘으면팔방으로통한다는뜻 로붙여졌을것이다.

다시‘ 팔자 ’를 이야기해보자. 사주팔 로인생을내다본다는것은참으로터무 없는 일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 것이 모두 타고난 운명, 그 팔자소관이 는말에공감할수없다. 가령사주팔자 같은(干支의 여덟 글자가같은) 사람이 구상하루출생인구를감안하여계산하 면 같은 시(時 : 2시간)에 태어난 사람 데, 그숫자가2만명이넘는다. 그런데 들의 운명이 같아야 하는 모순을 어떻 설명할수있겠는가.

만사만유(萬事萬有)는 모두 그곳에 나온다고한다. 바로태허(太虛)이다. 모 가 귀일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니, 주어 생명, 내게허용된시간을다만열심히 아가면 그것으로 운명이 되는 것, 그러 로 운명은 정해진 것 아니고 만들어 가는 이다.

김기빈